

강릉 한송정(寒松亭)의 역사와 경관적 특징

The History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Hansongjeong in Gangneung

김세호*

국문요약 강릉(江陵) 한송정(寒松亭)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관동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의 하나이다. 이러한 위상에 의거하여 몇몇 선행연구가 도출되었지만 명승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한송정의 변천사를 확인하고 경관의 요소를 살펴봄에 한 시에 나타난 면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송정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위상을 자랑했고 고관대작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후 조선 후기 관동팔경(關東八景)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화재를 겪고 경포대(鏡浦臺)에 지위를 양보한다. 한송정은 18세기 무렵 폐지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다시 복원되지 않았다. 한송정이 한때 명성을 자랑한 기저에는 다양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신라 사선(四仙)의 유물, 한송정곡(寒松亭曲), 풍호(楓湖)의 승경, 관동 인근의 명승이 각각 경관에 이바지하였고 정자가 사라진 뒤에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바탕이 되었다. 과거 문인들은 한송정에 올라 한시를 지어 자신의 유람을 기념하고자 하였다. 그 중 고려시대 안축(安軸, 1287~1348)의 시는 한송정의 상징으로 전하였고 이후 많은 차운시를 양산했다. 반면 모두가 이에 좌우되지 않았고 저마다의 형식을 취하면서 한송정을 읊은 한시의 면모는 다채롭게 역사에 전한다. 이상은 한송정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대략이니 향후 한송정을 이해하는 작은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한송정곡(寒松亭曲), 사선(四仙), 술랑(述郎), 한산사(寒山寺), 풍호(楓湖), 관동팔경(關東八景)

- 차례**
1. 머리말
 2. 한송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3. 역사문화경관 요소와 의미
 4. 한시에 나타난 면모와 기억
 5. 맺음말

특히 이곳에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유구한 유물이 전하여 당대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송정 인근에 차샘·돌아궁이·돌절구 등의 유적이 전하였고, 이는 신라 사선(四仙)인 화랑(花郎)의 자취로 회자했다. 이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오늘날 강릉의 차문화를 알리는 유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위상에 의거하여 학계에서는 한송정에 주목한 몇몇 선행연구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돌아보면, 한송정의 시문을 분석하여 문화적 위상에 주목한 것과 한송정의 유물을 논하며 차문화의 역사성을 밝히고자 한 시도가 눈에 들어온다.¹ 모두가 과거 문헌기록을 바탕으

1. 머리말

강원도에 자리한 강릉(江陵) 한송정(寒松亭)은 관동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의 하나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명성을 구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1 한송정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풍기, 「지역원형 탐구의 의미: 강릉 한송정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64, 한국고전문학회, 2023,

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분석되지 않은 시문이 상당하다. 특히 한송정은 관동 최고의 승경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와 관련한 주제는 아직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송정의 문헌기록을 참조하여 변천사를 고찰하고 그 명승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한송정은 오랜 시간 역사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연혁이 어떠한지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 있다. 이에 시대별 한송정 시문을 밝혀 변천의 과정을 확인한다. 아울러 한송정의 경관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곳을 읊은 한시를 분석하여 과거 문인들이 한송정의 어떠한 모습에 주목했는지 이미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송정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한송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한송정은 일설에 소나무 숲의 아름다움에 기대어 명명된 이름이라고 하였다.² 그 이름은 시기상 고려시대 「한송정곡(寒松亭曲)」이란 악부(樂府)에 처음 등장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어떤 곡조가 새겨진 비파(琵琶)가 강남지방으로 떠내려갔고 중국 사람들이 이를 풀어내지 못하였다. 이후 고려 광종(光宗) 무렵, 장연우(張延祐)라는 인물이 강남에 사신으로 가서 그 가사를 풀이하며 이때 한송정과 경포대(鏡浦臺)를 언급했다는 일화이다.³ 강릉의 승경으로 한송정이 먼저 등장하거나와 곡조의 제목으로 차용한 데에서 당대의 독보적인 위상을 돌아보게 한다.

다만 정자가 역사에서 꾸준히 존재한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안축(安軸, 1282~1348)은 1330년(고려충숙왕 17)

강원도 존무사(存撫使)에 임명되어 관동지역을 둘러본 적이 있고 이 무렵 한송정의 소나무가 불에 탄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⁴ 1349년(고려충정왕 1) 이곡(李穀)은 금강산과 동해안 일대를 유람하는 과정에서 한송정에 이르러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고을 사람들이 유람객이 이르는 것을 싫어해 건물을 헐고 소나무도 화재로 소실된 상황을 증언했다.⁵ 사실상 한송정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말한 것이다.

조선 전기 한송정은 그 명성에 힘입어 다시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한송정이 역사에 기억되는 주목할 만한 일화를 남겼다.

근래 진양(晉陽)으로 나아가 다스린 자가 세금을 걷는 데 법도가 없었다. 산림의 채소와 과실이라도 이익이 되면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고 사찰의 승려들 또한 그 폐해를 입었다. 하루는 운문사(雲門寺) 승려가 와서 알현하자, 태수가 말했다. “너희 절의 폭포가 올해 아름답겠구나.” 승려는 폭포가 어떤 물건인지 물렸지만 또한 징수할까 두려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폭포는 올해 돼지에게 다 먹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이를 조롱하기를, “한송은 어느 날 호랑이가 장차 물어갈까, 폭포는 그해 돼지가 모두 먹어치웠다네.”라고 하였다. 강릉에 한송정이 있으니 산수의 승경으로 관동에서 이름을 떨친다. 사신(仕臣)과 빈객(賓客)의 왕래로 수레와 말이 모여들어 물품을 대지 못할 정도였으니 고을 사람들이 항상 탄식하며 말했다. “한송정은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물어갈까.”⁶

4 안축, 『謹齋集』 권1 「題寒松亭」: [松近爲山火所燒故云].

5 李穀, 『稼亭集』 권5 「東遊記」: 飲餞於寒松亭, 亭亦四仙所遊之地. 郡人厭其遊賞者多, 撤去屋, 松亦爲野火所燒. 惟石竈石池二石井在其旁, 亦四仙茶具也.

6 權讜, 『海東雜錄』 권4 「徐居正」: 近有出宰晉陽, 徵斂無藝, 雖山林蔬果, 利無少遺, 寺社髣髴亦受其弊. 一日雲門寺僧來謁, 宰曰: “汝寺瀑布, 今年想佳.” 僧不知瀑布爲何物, 恐亦徵斂, 應聲曰: “瀑布今年爲猪喫盡.” 有人作詩嘲之曰: “寒松何日虎將去, 瀑布當年猪盡喫.” 江陵有寒松亭, 山水之勝, 擅於關東, 使華賓客之往來, 輪蹄輻輳, 供億不貲, 州人常詬曰: “寒松亭何日虎來將去.”

35~58쪽; 여훈경, 『차문화 공간으로서의 한송정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23; 장정룡, 「강릉 한송사와 한송정 시문과 전설 고찰」, 『강원문화연구』 45,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22, 5~40쪽; 송태자, 「한국 차문화의 음다공간 연구: 한송정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21.

2 許穆, 『記言』 권28 「寒松亭記」: 父老曰: “古有千歲深松, 寒影蒼蒼, 至今有寒松之號云.”

3 『高麗史』 권71 志 권25 樂二 [俗樂], 「寒松亭」.

서거정이 기록한 한송정과 관련한 일화이다. 강릉의 명물로 위상을 자랑하고 고관대작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현실을 보여준다. 단지 정자가 복원된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관동에서 최고의 지위를 확립하였음을 방증한다. 조선 전기 한송정의 명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기사이다.

한송정 일대는 그저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곳으로 거론되었다. 성현(成俔)은 강릉과 원주의 풍속을 비교하며, 강릉은 동해 근처에 자리하여 전답이 널려 있고 한송정·경포대와 같은 곳은 뛰어난 경관이자 이름난 고적으로 천하에 으뜸이라 하였다.⁷ 성혼(成渾) 또한 강릉은 산수가 빛은 기이한 경치가 아름다움을 자랑하니 한송정·경포대가 이름을 날리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낙토(樂土)이자 사대부가 거주할 만한 곳이라고 평했다.⁸

한송정은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강릉 제일의 승경으로 이름을 올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릉도호부(江陵都護府)에 수록된 한송정 관련 기사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누정〉 한송정: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동쪽으로 큰 바다를 굽어보고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게 드리운다. 정자 곁에 다천(茶泉)·석조(石竈)·석구(石臼)가 있으니 바로 술랑(述郎)의 신선 무리가 노닐던 곳이다.
- 〈고적〉 석조·석지(石池)·석정(石井)은 모두 한송정 곁에 있다. 사선이 노닐던 때의 다구(茶具)이다.⁹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한송정 기사의 일부이다. 한송정 일대의 풍광과 유물에 주목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누정의 기사에서 다천(샘물)·석조(돌아궁이)·석구(돌절구)의 존재를 소개했다. 다천은 석정과 같은 곳을 말하는 것 같고 석구는 석지로도 불렸음을 돌아볼 만하다. 사선이 노닐 때의 자취로 이들이 차를 달인 도구라고 하여 유구한 역사의 승경이라 평가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기실 한송정에 자리한 차문화 관련 유적은 이전부터 이미 명성을 자랑했다. 이제현(李齊賢)은 개성(開城) 묘련사(妙蓮寺)의 석지와 석조를 두고 기문을 지은 적이 있다. 삼장순암법사(三藏順菴法師)가 한송정의 석지와 석조를 보고 묘련사에 있던 제도와 유사함을 확인하면서 이에 묘련사의 유물을 복원해 차를 마신 일을 기념하여 작성한 기록이다. 이제현은 한송정의 것과 묘련사의 것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삼장순암법사로 인해 묘적사의 버려졌던 유물이 되살아난 사실을 예찬했다.¹⁰ 이를 발견한 기저에 한송정의 것이 근거가 되었으니 진작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특징적인 면모임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한송정은 조선 중기 무렵부터 경포대에 그 지위를 양보하기 시작한다. 허균(許筠, 1569~1618)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강릉부의 노닐고 구경할 만한 곳은 경포대가 제일이고 한송정이 다음이다. 사신으로 감상하는 자가 발걸음을 잊지만 아름다운 구절이나 놀랄 만한 시어로 인구에 전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절경으로 묘사할 것이 무궁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두로(杜老: 두보(杜甫))와 맹양양(孟襄陽: 맹호연(孟浩然))이 이를 본다면, “오와 초 땅은 동남으로 트였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떠 있네”, “기운 피어오르는 운몽택이여, 파도 요동치는 악양성이로다.” 등의 구절이 반드시 현판에 걸렸

7 成俔, 『虛白堂文集』 권3 「記江陵原州風俗」: 江陵在東海之陲, 田疇平衍, 如松亭·鏡浦神仙所遊之處, 奇觀勝蹟, 甲於天下. 由是觀之, 在瘠土而勤, 處沃壤而逸, 人之情也.

8 成渾, 『牛溪集』 권6 「雜記」: 四境之內, 名山勝水絕異之景比比有之, 非但寒松鏡浦流名於世而已, 眞我國之樂土, 士大夫之留種處也.

9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樓亭〉 寒松亭: 在府東十五里, 東臨大海, 蒼松鬱然. 亭畔有茶泉·石竈·石臼, 卽述郎仙徒所遊處; 〈古跡〉 石竈·石池·石井, 俱在寒松亭傍, 四仙所游之時茶具也.

10 李齊賢, 『益齋亂稿』 권6 「妙蓮寺石池竈記」.

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제가 중국에 미치지 못함을 또한 알 만하다.¹¹

허균이 지은 「학산초담(鶴山樵談)」 가운데 강릉의 승경을 거론한 기사이다. 본래 우리나라 명승의 위상에 걸맞은 이름난 시구가 없음을 비판하기 위함이지만, 그 와중에 경포대를 제일로 언급하고 한송정을 다음으로 평가한 내용이 보인다.¹² 관동팔경(關東八景)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 한송정의 경관에 일부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 한송정은 앞선 시기 화제의 영향으로 쇠퇴한 경험을 반복한 것 같다. 16세기 남사고(南師古)는 강릉을 유람하는 과정에서 한송정이 재해를 당한 것을 보고 이후 강릉에서 과거에 급제하는 선비가 30년간 나오지 않으리라 예견했다.¹³ 1620년(광해군 12) 최유해(崔有海)는 한송정에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아 기이한 경관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고, 1686년(숙종 12) 이시선(李時善)은 관동을 유람하며 지나는 길에 한송정을 보았지만 강릉도사(江陵都事)를 지낸 정태방(鄭泰邦)이 명성이 실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들어가지 않았다.¹⁴ 이전과 달라진 한송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물론, 조선 후기에도 한송정의 명성을 듣고 유람을 계획하거나 강릉을 대표하는 명승으로 평가한 사례는 없지 않다. 다만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계승된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김리만(金履萬, 1683~1758)의 기록을 보인다.

이른바 한송정은 어느 대에 창건되고 어느 대에 훼손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 터는 민멸되어 사라지고 끝내 무성한 풀밭이 되었으니 호사가로 이를 중신(重新)한 자가 없는 것이 애석하다. 비록 그러하나 예로부터 정자의 아름다움을 기록한 것은 크고 화려한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그 형승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여겼다. 비록 건물은 이미 훼손되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참으로 예전과 같으니 다시 어찌 한스러워하겠는가!¹⁵

1746년(영조 22) 김리만은 한송정이 사라진 현실을 목도했다. 유허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위치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였다. 사실상 어느 시점에 한송정이 사라지고 더 이상 복원의 시도조차 일어나지 않은 현실을 증명한다. 다른 경우를 보아도 17세기까지 한송정이 존속한 자취가 종종 보이지만 이후의 사례는 직접 목도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18세기에 이르러 한송정은 결국 이름만 전하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인지 모른다.

이러한 정황은 다른 시문을 통해 추정할 만하다. 김도행(金道行)은 1760년(영조 36)을 전후하여 한송정 유허에 올라 감회를 읊었다.¹⁶ 19세기 허훈(許薰)도 한송정은 터만 존속한 채 사선비(四仙碑)와 유물만 남은 현실을 기록했다.¹⁷ 김정호(金正浩)·최성환(崔星煥)이 편찬한 『여도비지(輿圖備志)』에는 한송정이 폐지되고 사찰로 변한 사실을 지목했다.¹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자가 복원되지 못한 것은 동일하다. 한송정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도 그 제도를 회복하지 못했고 과거의 영예를 바탕으로 역사에

11 許筠, 『惺所覆瓿藁』 권26 「鶴山樵談」: 江陵府遊觀處, 鏡浦爲上, 寒松次之. 使華賞者相踵, 而無佳句警語, 傳播人者, 豈不以絕境描寫無窮者乎? 使杜老與孟襄陽寓目, 則「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等句, 必在板上, 東國人才, 不逮中原, 亦可卜矣.

12 허균은 두보의 「등악양루(登岳陽樓)」와 맹호연 「임동정(臨洞庭)」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승경에 이와 같은 명시(名詩)가 전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13 李裁, 『密菴集』 권16 「南格菴遺事」: 嘗遊江陵, 見寒松亭災, 歎曰: “自此三十年, 府無登科之士.”

14 崔有海, 『嘿守堂集』 권18 「嶺東山水記」: 行十里許, 有寒松亭, 海山低處有松數株, 似非異境, 而有石雕鏤, 異迹頗多; 李時善, 『松月齋集』 권5, 「關東錄」: 歷路望見寒松亭, 而前都事鄭泰邦名不及實故不入也.

15 金履萬, 『鶴臯集』 권10 「東遊錄」: 所謂寒松亭者, 不知於何代毀於何年, 而基址漫滅, 鞠爲茂草, 惜乎無好事者重新之也. 雖然自古記亭之美者, 不在於輪焉奩焉之美, 而美其形勝之美, 則雖棟宇已毀, 而其美固自若也, 又何憾乎?

16 金道行, 『雨臯集』 권1 「登寒松亭遺墟有感」.

17 許薰, 『舫山集』 권14 「東遊錄」: 南有寒松亭遺址, 四仙碑[即永郎·述郎·安詳·南石行, 新羅人], 及煉藥石鼎·石臼尙存.

18 金正浩·崔星煥, 『輿圖備志』 권15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寒松亭: 治東十五里, 海邊. 亭畔有茶泉·石竈·石臼·石池. 今廢爲寺.

이름만 전하는 공간으로 기억되었다.¹⁹

3. 역사문화경관 요소와 의미

한송정은 조선 후기 관동팔경이 정립되기 이전까지 관동지역 최고의 승경이자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로 명성을 자랑했다. 그 이름에서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풍광을 상상할 만하지만 이와 함께 정자의 명성에 이바지한 요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 한송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상을 점유했고 이는 한송정이 이름을 떨친 사유로 작용했다. 이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한송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송정이 한때 강릉을 대표하는 명승으로 위상을 공고히 한 데에는 이를 평가한 당대 문인들의 시각이 녹아들어 있다. 아울러 명승을 평가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규정할 수 없으니 이곳에는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요소가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굳이 이러한 특징을 몇몇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송정에 전하는 유물이다. 둘째, 한송정을 알린 「한송정곡」의 영향이다. 셋째, 한송정 가까이 자리한 풍호(楓湖)의 승경이다. 넷째, 관동의 명승과 어우러진 지리적 특징이다. 이상의 주제를 바탕으로 각각의 면모를 살펴본다.

한송정에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유적이 존재했고 이는 그 역사적 연원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허목(許穆, 1595~1682)이 지은 기문은 다음과 같다.

정자에서 내려와 술랑정(述郎井)을 구경했다. 우물은 작은 돌을 쌓아 만들었고 반석을 뚫어 그 위를 덮었다. 이끼가 짙고 물이 맑아 마치 샘물이 돌 틈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샘물은 달아 장령(長嶺) 우통(于筒)의 물와 더불어 함께 신정(神井)이라 일컬어진다. 그 아래 석반(石盤)은 길이가 6척이고 너비는

길이의 3분의 2이며 깊이는 1척으로, 석우(石冪)를 만들었다. 위로 석반과 나란하고 그 아래는 구멍이 밖으로 향했으며 그 옆에는 기이한 돌을 깎아 모양이 마치 교룡이 머리를 쳐든 것 같다. 양쪽에서 나와 그 절반을 적시고 물이 가득 차면 돌이 푸르스름해 더욱 기이하다. 다시 옆에 소반 같은 돌을 설치했고 세 개의 석우를 파니 모두 기괴하고 특이한 모양으로 이를 석조·석지라고 부른다.²⁰

조선 후기 허목이 지은 「한송정기(寒松亭記)」의 일부이다. 이전 시기 관련 기문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송정을 개괄한 의미 있는 기사로 평가할 만하다. 전체적인 구성은 정자의 유래를 서술하고 제도를 조명하며 풍광을 묘사한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상은 그중 한송정의 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로부터 전하는 유물을 논한 부분이다. 분량상 기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이것이 지닌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허목은 이 글에서 한송정의 유적을 술랑정이라 표현했다. 술랑정은 글자에서 드러나듯 샘물이 솟아나오는 석정을 가리킨다. 허목은 여기서 나오는 물이 한강(漢江)의 근원으로 평가되는 오대산(五臺山) 우통수(于筒水)에 버금간다고 예찬했다. 이를 신정이라 일컬었다고 하니 그 역사적 기원에 더하여 신비로운 곳임을 배가한 평가가 보인다. 아울러 유물의 제도를 자세하게 기록해 실재한 것과 비교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사선의 유물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송정에 신라 대의 유적이 역사성을 담보했다면 고려 시대 나온 「한송정곡」은 그 명성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이는 『고려사』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許穆, 『記言』 권28 「寒松亭記」: 亭下觀述郎井, 井築小石爲之, 穿盤石覆其上, 苔深水清, 若泉出石竇. 泉甘, 與長嶺于筒之水, 并稱神井. 其下石盤長六尺廣三分長之二, 深一尺, 作石冪, 上與槃齊, 其底有竅向外. 其傍琢奇石, 狀若蟠螭昂首, 而兩出泐其半, 水滿則石蒼然尤奇. 又傍置石如槃三石冪, 皆奇詭異狀, 謂之石竈石池者也.

19 靑吾, 「關東雜詠」, 『개벽』 제42호, 1923.12.01.

세상에 전하기를, 이 노래는 비파 바닥에 쓰였고 흘러가 강남(江南)에 이르렀으나 강남 사람들이 그 가사를 풀이하지 못했다. 광종(光宗) 조에 나라 사람 장진공(張晉公: 장연우(張延祐)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강남에 가서 강남 사람들이 이를 물으니 진공(장연우)이 시를 지어 풀이했다. “달빛 새하얀 한송정의 밤, 물결 잔잔한 경포대의 가을. 슬피 울며 왔다 다시 가니, 한 마리 물총새를 믿겠네.”

고려시대 한송정이 승경을 자랑했던 절대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기사이다. 장연우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비파에 새겨진 가사를 해석하며 그 내용이 드러났다고 한다. 장연우는 어릴 적 부친의 사정으로 중국에서 자란 인물로 보인다. 이에 중국어에 능통하여 사신을 접대하는 일도 맡았고 벼슬은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올랐다고 하였다. 언제 적 있었던 일인지 알기 어렵지만 악부를 풀이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장연우에 의해 드러난 「한송정곡」은 한송정을 알리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지닌 일화로 언급되었다. 정조(正祖)는 관동지역 공령생(功令生)의 응제를 두고 지은 기록에서 비파의 가곡이 강남에 유포되어 한송정이 명성을 얻게 된 사실을 기억했다. 사물이 지우를 입는 과정에 의미가 있음을 평가했다. 이덕무(李德懋)는 장연우의 일화를 통해 고려시대에 신라의 이두와 같은 우리나라 글이 있었던 증거로 추정했다.²¹ 단지 한송정의 존재에 국한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언어사에 의미 있는 기사임을 방증한다. 아울러 이러한 특징은 한송정의 이름이 거듭 회자하며 역사에 오르내리는 바탕으로 작용했다.

관동지역은 예로부터 많은 호수가 존재해 승경에 이바지했고 한송정 인근의 풍호는 또 하나의 승경으로 정자의 경관에 기여했다. 다음은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기록이다.

강릉부(江陵府) 동남쪽으로 십여 리에 풍호가 있다. 노니는 자는 한송정에서 남쪽으로 가서 긴 숲을 뚫고 가는 모래를 밟는다. 더욱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숲숲 모래를 지나 조금 돌아서 사방을 둘러보면 홀연 평평한 물결이 아득하게 펼쳐져 하늘과 더불어 하나의 빛으로 보인다. 밝고 찬란해 마치 별세계와 같아 사람을 당황하고 놀라게 하니 참으로 승지(勝地)이다. 그러나 세상에 칭찬하는 자가 보이지 않고 특히 경포에 압도되어 마치 경수(溼水)가 맑았다가 위수(渭水)로 탁해지는 것과 같을 뿐이다. 내가 관리가 되었을 때 이따금 거둬 가서 노닐며 몹시 즐거워했고 지금도 꿈에서 항상 왕래하며 잊을 수가 없다. 대개 그 조용하고 평온함이 두건을 짓히고 지팡이를 거닐기에 마땅하여 사랑스러웠다.²²

정경세는 1613년(광해군 5) 강릉부사(江陵府使)를 지낸 적이 있다. 대략 2년 반을 강릉에 머물렀고 이후 강릉의 기억을 회상하며 지은 시의 서문이다. 제목에 풍호를 추억한다고 하였고 경포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 시작에 한송정에서 남쪽으로 가서 풍호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니 사실상 한송정과 연관 호수임을 명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강릉부사를 역임한 경력에서 나온 평가로 결코 경포에 부족하지 않은 경관임을 상상하게 한다.

이는 비단 정경세의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姜栢年(姜栢年)은 한송정 가까이에 풍호가 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에 배를 띄우고 유람을 즐겼다고 하였다. 십리에 연꽃이 피어 앞뒤로 비치며 일대 푸른 산이 좌우에서 두른 풍경을 묘사했고, 그물로 고기 잡고 마름이나 연꽃을 따느라 하루 종일 돌아기를 잊었다며 신선 세계와 같은 경지임을 예찬했다.²³ 관동의 많은 명승이 호수를 중심으로

21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4 淸脾錄[三], 「寒松亭曲」: 案此說則高麗時, 別有國書以譯方言, 如新羅史讀, 本朝訓音, 而未可考也.

22 鄭經世, 『愚伏集』 권2 「憶楓湖」: 江陵府東南十餘里有楓湖, 遊者自寒松南行, 穿長林踏細沙, 愈入而愈深, 歷盡松沙, 稍轉而西顧, 則忽見平波浩渺, 與天一色, 晃朗如別一世界, 令人錯愕而驚, 眞勝地也. 然而不見稱於世者, 特爲鏡浦所壓, 有如涇止是混而以渭濁耳. 余作吏時屢往遊而甚樂之, 至今魂夢常往來而不能忘, 蓋愛其幽靜平穩, 宜於岸巾携筇也.

23 姜栢年, 『雪峯遺稿』 권23 「送別序」: 唯楓湖在於治之南十五里許, 而與寒

형성된 처지를 돌아보면, 풍호의 존재가 한송정의 승경에 이바지했음을 알 만하다.

마지막은 주변의 승경과 어우러진 지리적 위치이다. 강재항(姜再恒, 1689~1756)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그 남쪽은 한송정으로 정자의 사방은 소나무 숲이고 숲 밖은 백사정(白沙亭)이다. 정자에서 몇 리를 내려오면 사선의 다구(茶具)·석조로 모두 녹도(錄圖)에 나란히 실려 있다. 다시 그 남쪽은 풍호로 호수 안에 마름과 연꽃이 몇 리에 펼쳐져 바라보면 아득하다. 다시 그 남쪽은 허이대(許李臺)로 대개 허중(許琮)·이륙(李陸)이니 『강릉부지(江陵府誌)』 및 『여지승람』에 자세히 보인다. 다시 그 서쪽으로 산을 돌아 10리를 가면 송담서원(松潭書院)이다. 바로 율곡 선생(이이(李瑀)) 사당으로 사임당(師任堂)이 그린 초충도(草蟲圖)가 있다.²⁴

강백년이 강릉의 승경을 나열한 기사이다. 경포대에서 시작하여 강릉의 명승을 열거했다. 이상은 한송정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한송정 밖으로 백사정이 있고, 다시 사선의 유물이 있으며, 풍호가 너른 구역에 펼쳐지고, 다시 허이대가 있음을 언급했다. 사선의 유물이 실린 녹도는 도가(道家)의 책을 가리킨다. 대략 한송정을 중심으로 영역을 한정하면, 인근에 많은 명승이 자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실 이상의 경물 가운데 백사정·허이대는 한송정이 명성을 자랑하던 고려시대에는 부재한 것들이다. 관동의 승경이 주목받는 과정에서 한송정 숲속 밖으로 펼쳐진 흰 모래사장과 허이대가 새롭게 추가된 과정을 볼 수 있다.

松白沙相去才一牛鳴之地也。未曾一遊，蓋往觀者，遂與爲楓湖之遊焉。於是招舟子邀野老，共載一葉扁舟，沿洄上下，任其所如，十里荷花，掩映前後，一帶蒼巒，彎環左右，或舉網得魚，或採菱或摘蓮，盡日忘返，悠然自得，宛致此身於神仙之境也。

24 姜再恒, 『立齋遺稿』 권12 「臨瀛記」: 其南寒松亭, 亭四隕松林, 林外白沙亭, 亭下數里, 四仙茶具石竈, 並錄圖并存焉。又其南楓湖, 湖中菱荷數里, 望之瀾茫。又其南許李臺, 蓋許琮·李陸也, 詳見府誌及勝覽。又其西循山十里, 松潭書院, 卽栗谷先生祠, 有師任堂畫草蟲焉。

이처럼 정자의 주변으로 많은 명승이 연달아 포진하면서 유람객의 발길이 지속되었고, 한송정은 기존의 명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심이 이어졌으리라 짐작할 만하다. 한송정이 여러 차례 화재 등으로 위기를 겪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과거의 위상을 기억할 수 있었던 바탕에 한송정과 연한 관동의 명승이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4. 한시에 나타난 면모와 기억

예로부터 명승에는 시인묵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이곳에서 창작된 시문은 명승을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한송정 역시 한 시절 명성을 구가했고 이곳에서 읊은 여러 한시는 역사에 널리 회자했다. 다만 기왕의 변천사를 돌아보면 여말선초 무렵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것과 달리 이후 관동팔경이 형성되고 경포대 등에 지위를 내주면서 역사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문이 창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송정의 한시는 안축의 작품이 전형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송정의 상징으로 전하며 많은 차운시를 양산했다. 다만 모두가 이에 좌우되지 않았으니, 한송정을 읊은 시는 오언절구(五言絶句)·오언율시(五言律詩)·칠언절구(七言絶句)·칠언율시(七言律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저마다의 시각을 담아 시문을 지은 방증으로 이 장에서는 한송정을 읊은 한시를 통해 당대 이미지를 살펴본다. 일정한 특징을 드러낸 몇몇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기억하고자 했던 한송정의 면모를 확인한다.

먼저 고려시대 안축이 한송정에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四仙會會此, 사선이 일찍이 이곳에 모였건만
客似孟嘗門, 나그네는 맹상군의 식객과 같네.
珠履雲無迹, 구슬 신발 구름처럼 자취 없고

蒼官火不存. 푸른 솔 화재로 남지 않았도다.
尋眞思翠密, 진경 찾아 푸른 숲 상상하면서
懷古立黃昏. 옛일 회고한 채 황혼에 서 있지.
惟有煎茶井, 그저 차 달이던 우물만 남아서
依然在石根. 변함없이 바위 아래 자리했구나.²⁵

안축이 강원도 존무사를 지내던 시절 한송정에서 지은 시이다. 한송정의 상징으로 후대에 거듭 차운한 작품이기도 하다. 다만 시기상 한송정을 상징하던 소나무 숲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본문에서 이러한 현실을 언급한 정황이 보이거니와, 시의 마지막에 “소나무가 근래 산불로 타버렸기에 읊은 것이다”라고 세주를 부기했다.²⁶

이러한 현실에도 안축의 시가 명시로 평가된 것은 작품에 깃든 심상에 의거한 결과로 판단한다. 안축은 수련(首聯)에서 사선이 유람한 전설을 떠올리고 자신을 맹상군(孟嘗君)의 식객에 견주었다. 계명구도(鷄鳴狗盜) 고사에 의거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 겸사이다. 함련(頷聯)에서는 선인의 자취가 사라지고 옛 풍광조차 남아 있지 않음을 말했다. 대신 본연의 모습은 아름다움이 가득하였으니, 이에 경련(頸聯)에서 이를 추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처지를 읊었다. 안축은 마지막 미련(尾聯)에서 다정의 유희를 돌아보았다. 한송정의 역사를 증언하는 산물로 이러한 생각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한 모습이다. 한송정이 지닌 무한한 아름다움을 그려낸 동시에 고금의 대비를 통한 인생무상의 회한을 느낄 수 있다.

안축의 시는 오래지 않아 널리 알려졌고 차운시가 뒤를 이어 한송정을 장식했다. 고려 후기 이무방(李茂芳, 1319~1398)은 안축의 시에 차운해 한송정을 읊었다.

亭依松麓斷, 정자 기댄 곳 솔 언덕 끊어지고

東望海無門. 동쪽 바라보니 바다는 문이 없네.
境靜仙蹤在, 경지 고요해 신선 자취 남아 있고
沙明鳥篆存. 모래 밝아 새 발자국 찍혀 있구나.
碑心苔暈綠, 비석은 이끼 낀 채 푸른 빛 띠고
石面雨痕昏. 돌 면에는 비 내린 흔적 어둡지.
一掬泉無渴, 한 움큼의 샘물 마르지 않았으니
源乎天地根. 천지의 뿌리에 근원한 것이로다.²⁷

이무방의 본관은 광양(光陽), 자는 석지(釋之)이다.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했고 평생 청렴결백한 행실을 견지한 인물로 평가된다. 개인 문집은 전하지 않고 『동문선(東文選)』에 두 편의 시만 전하지만, 위의 시는 역사에서 한송정을 읊은 대표적인 시문의 하나로 손꼽힌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송정 관련 기사에 이 시가 수록되어 있고 안축의 운자를 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무방은 소나무 숲에 자리한 한송정을 마주했다. 수련에서 해문(海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솔숲이 이 무성함을 증거한 표현이다. 함련에서는 사선의 자취와 백사장의 풍경을 대비시켰다. 경련은 사선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니 서거정의 『동인시화(東人詩話)』 등에 비석의 존재를 언급한 대목이 보인다.²⁸ 이무방은 마지막 미련에서 다천의 샘물을 지목하며 영험함이 깃든 한송정의 기원을 한껏 예찬했다. 한송정의 유물을 바탕으로 역사성을 인정한 작품이라 하겠다.²⁹

물론 모두가 안축의 시에 차운한 것은 아니다. 이후로 자신만의 운자를 취해 한송정을 읊은 경우도 나타난다. 17세기 정필달(鄭必達, 1611~1693)의 시는 다음과 같다.

好在寒山寺, 한산사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니

27 李茂芳, 『東文選』 권10 「次寒松亭韻」.

28 徐居正, 『東人詩話』, 「朴惠肅信少有時譽」: 距此數十里, 有寒松亭. 亭亦有四仙碑. 至今仙曹神侶, 往來其間, 花朝月夕, 人或見之. 但可望不可近也.

29 이외에 안축의 시에 차운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周世鵬, 『武陵雜稿』 권4 「寒松亭, 次前賢韻」; 尹舜舉, 『童土集續』 권1 詩 「寒松亭, 用古韻」.

25 安軸, 『謹齋集』 권1 「題寒松亭」.

26 安軸, 『謹齋集』 권1 「題寒松亭」: [松近爲山火所燒故云].

曾聞禪坦題. 선탄이 시를 지은 곳이라고 들었네.
 烟收沙岸直, 안개 걷히자 모래 언덕 곧 드러나고
 天入海門低. 하늘 이어져 바다 입구로 들어가자.
 松翠當行蓋, 소나무 푸른 빛 수레 덮개 가리고
 棠花染馬蹄. 해당화 꽃잎은 말발굽을 물들이네.
 白鷗何解事, 흰 갈매기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一一傍人啼. 저마다 사람 곁에서 울어대는구나.³⁰

정필달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겸(士兼), 호는 팔송(八松)이다. 1669년(현종 10) 울진현감(蔚珍縣監)에 제수된 적이 있다.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금강산(金剛山) 등을 유람했고 그 과정에서 한송정을 들른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한송정이 명맥을 이어가던 시절이지만 한편에서 한산사(寒山寺)라는 사찰이 들어서 이목을 끌던 시기이기도 하다.³¹

정필달은 수련에서 한산사의 존재를 지목하고 선탄(禪坦)의 시가 전하는 곳으로 언급했다. 선탄은 고려 후기 승려로 시문에 능해 사대부들과 교류가 많았던 인물이다. 개인문집은 전하지 않고 『동문선』에 몇 편의 시만 남았지만 과거 한산사를 다녀간 자취가 전한 모양이다. 이어 함련과 경련은 모두 한송정의 정경을 읊었다. 함련에서 주변을 두른 지세를 읊었다면 경련에는 화목(花木)과 어우러진 묘사가 생생하다. 마지막 미련은 흰 갈매기와 사람의 존재를 대비시켰다. 『열자(列子)』에 전하는 기심(機心)의 고사를 취한 것으로 자신도 이곳의 정취와 동화되어 망기(忘機)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속세와 대비되는 한송정을 그려낸 작품으로 판단한다.³²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송정은 몇 차례 화재 등

으로 인해 거듭 부침을 겪어 왔다. 이러한 한송정의 모습을 읊은 경우도 몇몇 보여 달라진 경관을 돌아볼 만하다. 18세기 김도행(金道行, 1728~1812)은 폐지된 한송정을 방문했고 자신의 심상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何年亭此地, 어느 해 이곳에 정자 있었던가.
 今見但荒基. 지금 보니 황량한 터만 남았네.
 牧筵斜陽路, 목동은 석양 길에서 피리 불고
 漁歌遠水湄. 어부는 먼 물가에서 노래하지.
 鷺飛空勝景, 해오라기 날아도 승경 부질없고
 鶴去杳歸期. 학 떠나 돌아올 기약 아득하다.
 肯構將誰望, 정자의 건축 누구에게 기대할까.
 登臨不禁悲. 올라선 채 슬픔 금치 못하노라.³³

김도행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중립(中立), 호는 우고(雨皐)이다. 안동(安東) 천진(川前) 출신 문인학자로 이황(李滉)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로 일컬어진다. 김도행이 어떠한 연유로 한송정을 방문한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시문의 배열상 젊은 시절 장유(壯遊)를 행하는 과정에서 찾았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김도행은 수련에서 터만 남은 한송정의 현실을 언급했다. 함련은 주변에 보이는 한적한 풍경을 읊은 대목이다. 과거 벼슬아치들이 바빠 왕래했다는 유래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에 경련에서 과거 신선이 놀았다는 자취마저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자의 복원은 요원해 보일 뿐이다. 그저 황량하게 남은 터를 마주한 채 울울함을 금치 못하였으니, 세월의 흐름에 인생무상의 감회를 깊이 느꼈으리라 공감할 수 있다.³⁴

30 鄭必達, 『八松集』 권3 詩「寒松亭」.

31 한산사는 본래 문수사(文殊寺)에 기원한 사찰로 한송사(寒松寺) 등으로도 일컬어졌다. 선행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시문을 논하였다. 장정룡, 앞의 논문 참조.

32 이외에 속세와 구별된 정황을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金時習, 『梅月堂詩集』 권10 「寒松亭」; 姜栢年, 『雪峯遺稿』 권4 「寒松亭」; 成近默, 『果齋集』 권2 「寒松亭, 次瑟腹樂調韻」.

33 金道行, 『雨皐集』 권1 詩「登寒松亭遺墟有感」.

34 이외에 퇴락한 한송정을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具思孟, 『八谷集』 권1 「寒松亭, 次稼亭韻[亭自古盛有名稱, 而今則只有稚松, 殊無佳致. 亭畔有樂竈茶泉猶在, 乃述郎仙徒所遊處. 文殊寺在其前]」.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전하는 한송정 시문을 바탕으로 정자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명승적 가치를 분석하며 한시에 나타난 면모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한송정의 이름은 고려시대부터 문헌에 등장한다. 다만 신라 사선인 화랑의 유물이 전한다고 하여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공간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관동지역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원성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송정은 조선 후기 관동팔경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화재 등을 겪고 경포대에 밀리기 시작한다. 18세기 퇴락한 이후 다시 복원되지 못하여 역사에 이름만 전하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송정은 어떠한 사유로 명성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만하다. 첫째, 한송정에 전하는 신라 사선의 유물로 이는 역사적 연원을 공고히 하는 증거가 되었다. 둘째, 악부 「한송정곡」으로 이는 여러 측면에서 한송정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셋째, 한송정 가까이 자리한 풍호는 또 하나의 승경으로 정자의 경관에 이바지했다. 넷째, 한송정에 연한 관동의 명승들은 한송정의 존재를 기억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경관에 이바지하며 한송정은 폐망한 이후에도 이름을 존속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한송정은 이러한 승경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한시가 창작되는 무대로 작용했다. 고려시대 안축은 그 선편을 잡았고 무한한 아름다움과 유구한 역사를 읊어 한송정 시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시작으로 안축의 운자를 취해 차운한 경우를 여럿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운자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만의 시를 통해 한송정을 읊은 경우도 보인다. 속세와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예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정자가 사라진 뒤에도 한송정의 시문은

거듭 창작되었으니 이는 한송정의 역사적 위상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高麗史』/『東文選』/『新增東國輿地勝覽』/『輿圖備志』/『개벽』
姜栢年, 『雪峯遺稿』/姜再恒, 『立齋遺稿』/權鼈, 『海東雜錄』/金道行, 『兩阜集』/金履萬, 『鶴阜集』/徐居正, 『東人詩話』/成俔, 『虛白堂集』/成渾, 『牛溪集』/安軸, 『謹齋集』/李穀, 『稼亭集』/李德懋, 『靑莊館全書』/李時善, 『松月齋集』/李栽, 『密菴集』/李齊賢, 『益齋亂稿』/鄭經世, 『愚伏集』/鄭必達, 『八松集』/崔有海, 『嘿守堂集』/許筠, 『惺所覆瓿藁』/許穆, 『記言』/許薰, 『舫山集』

2. 단행본 및 논문

김풍기, 「지역 원형 탐구의 의의: 강릉 한송정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64, 한국고전문학회, 2023.
송태자, 「한국 차문화의 음다공간 연구: 한송정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21.
여훈경, 「차문화 공간으로서의 한송정 연구」, 계명대박사학위논문, 2023.
장정룡, 「강릉 한송사와 한송정 시문과 전설 고찰」, 『강원문화연구』 45,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22.

Abstract

The History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Hansongjeong in Gangneung

Kim, Se-Ho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ansongjeong (寒松亭) in Gangneung has long been celebrated as a major scenic site of the Gwandong region, yet its landscape qualities have seldom been examined in depth. This article traces the pavilion's historical development, identifies the elements that shaped its scenic value, and considers its representation in classical Chinese poetry. From the late Goryeo to early Joseon period, Hansongjeong held significant prestige and attracted visits from high-ranking officials. Its prominence declined in the late Joseon era as the "Eight Scenic Views of Gwandong" (關東八景) became established, and repeated fires eventually led to its disappearance by the eighteenth century.

Hansongjeong's earlier fame was supported by cultural and geographical factors: relics linked to the Four Immortals of Silla, the musical piece Hansongjeonggok (寒松亭曲), the scenic beauty of Lake Punggho (楓湖), and several nearby notable sites. These elements kept its memory alive even after the pavilion ceased to exist. Poets across periods visited the site and composed han-si about it. Among them, Ahn Chuk's (1287–1348) poem became especially influential, inspiring numerous later responses, though writers ultimately produced a diverse body of works reflecting varied perspectives.

By presenting an overview of Hansongjeong's history, scenic components, and literary reception,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into its cultural significance and its role within the broader landscape tradition of the Gwandong region.

Keywords Hansongjeonggok(寒松亭曲), Four Immortals of Silla(四仙), Sulang(述郎), Hansansa(寒山寺), Lake Punggho(楓湖), Eight Scenic Views of Gwandong(關東八景)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